

원희룡 장관, “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”

- 유관부서 협력 요청 및 1차관 현장 급파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7일(월) 오후 1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하여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”고 밝혔다.
- 또한 원 장관은 경찰청에 “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”을 요청하는 한편,
 - 이원재 1차관에게 “인천 미추홀구 피해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고, 정부가 도와줄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”을 지시하였다.
 - 이에,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은 금일 오후 5시 경 인천시장, 미추홀구청장 등을 만나 피해현황 및 지원방안 추진상황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.

2023. 4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